

#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 찾습니다”

## 지자체-한전-중기청-병무청 맞손...고용시장 개선 내일 김대중센터서 광주·전남 합동 채용박람회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구직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합동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은 오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17 광주·전남 대규모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광주시(윤장현 시장), 전남도(이낙연 도지사), 광주·전남병무청(장현서 청장), 한국전력공사(조환의 사장)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뿌리기업, 에너지벨리기업, 산업기능요원 채용기업 등 3가지 테마의 채용박람회를 한자리에서 마련했다.

박람회에는 76개 기업과 19개 특성화고, 2개 기술사관 대학 등이 참여하며, 97개 부스에서 현장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한전이 추진중인 에너지벨리 투자기업 34개사에서 141명을, 뿌리 및 산업기능요원 42개사에서 약 2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구직자 중심의 행사를 위해 행사적인 개막식 행사를 생략하고 채용상담에만 집중하도록 무료이력서 사진관, 이미지컨설팅관, 무료 이력서작성대 등의 부대부스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광주지역 95개소 주민센터에 전단지 배포, 나주시내 홍보 현수막 게시, 구직자 참여문자 발송 등 유관기관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자만 약 2,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게는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종합 평가서 가점 5점 부여, 무료 부스 지원, 고급 기업포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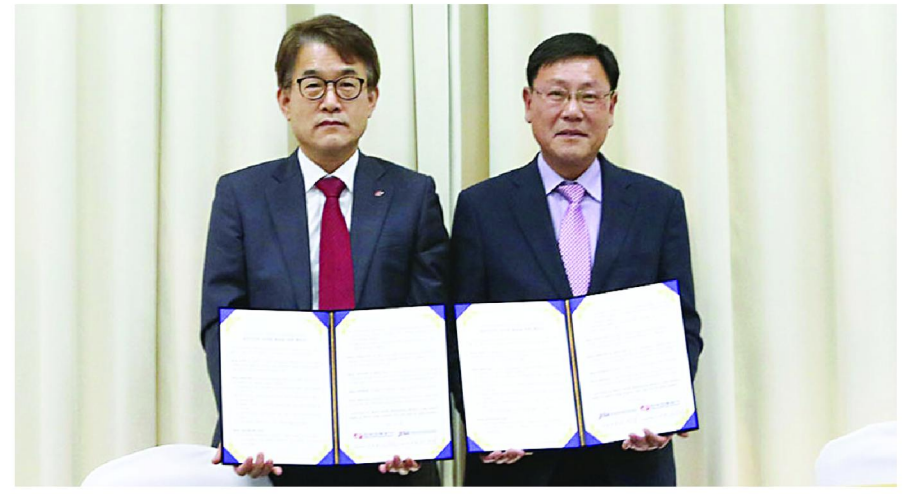
조환의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은

에너지벨리 투자협약기업이 200여개사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의 전문인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했던 것을 지역특화산업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청년층의 많은 참여를 통해 지역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은 물론 기업 인력난 해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145)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일 한국전력공사와 실감미디어 기술 보급·확산과 전남 ICT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 ICT 생태계 조성 협력

### 전남진흥원-한전 업무협약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26일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의)와 실감미디어 기술 보급·확산과 전남 ICT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실감미디어 기술 공동개발 지원체계 구축 ▲ICT 생태계 구축 관련 사업 발굴과 수출 등 상용화 지원 ▲공동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정보 및 인력·시설

등 인프라 공유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내용에 대한 전략수립과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전남진흥원은 지난 2012년부터 ‘실감미디어 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내에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 지역 중기 13개사 2,630만달러 수출계약

### 광주TP, 해외비즈니스센터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9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장과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와 수출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호주, 인도 등 19개 국가의 해외비즈니스센터장과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50여개 지역 중소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광주TP 해외비즈니스센터장을 통해 발굴된 미국, 중국, 터키, 인도, 스페인 등에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지역 중소기업과의 수출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광주지역 기업 13개사가 뉴질랜드와 중국 등 9개국 해외바이어 14명과 2,6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노셀코리아(대표 최운용)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을 뉴질랜드와 스페인, 베트남에 450만 달러를 수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나눔테크(대표 최무진)는 인도 유통업체와 심장제세동기 50만 달러 수출을 확정했다. 신성테크(대표 임은섭)는 유아제어 장치를 중국 심전고과산농기유한공사와 300만 달러를, 고려오토론(대표 정휘영)은 터키에 50만 달러 규모의 광통신 부품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이번에는 수출 소외지역인 가나, 스페인, 뉴질랜드, 터키, 루마니아 등의 현지바이어 발굴을 통해, 향후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TP는 현재 23개국 28개 지역에 해



광주테크노파크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9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장과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와 수출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비즈니스센터를 지정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또 광주전남KOTRA지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과 수출지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수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에도해결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 및 수출협약 체결이 실제계약과 수출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들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지역 내 외국인유학생을 활용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차별화된 수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 3년간 위조지폐 오천원권 ‘최다’

### 한은 광주전남본부, 현금거래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오천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94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단위별로 오천원권이 64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원권이 22장, 오만원권 5장, 천원권 3장 순이다.

오천원권 위조지폐는 동일한 위조범이 대량으로 유통시켜 전국적으로 광기간에 걸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현금거래가 많고 위조지폐가 유통되기 쉬운 농어촌의 오일장 등을 방문해 위조지폐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정창현 차장은 “최근 들어 광주지역에서 오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있어 현금거래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위조지폐 발견시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보해양조, 기아챔스필드서 ‘보해의날’

### 29일 ‘걸스데이’ 팬사인회... 헤리 시구·민아 시타

올 시즌 단독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을 위해 보해양조가 지역민과 함께 응원에 나선다.

보해양조는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보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7년간 호남인과 함께해온 보해가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보해는 보해의 날 행사를 위해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티켓 1,400장을 구매해 임직원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보해는

지난 2013년부터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하는 보해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보해양조 전속모델인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을 만난다.

일세주 모델인 헤리가 시구자로, 같은 그룹 멤버인 민아는 시타자로 나선다. 경기에 앞서 4번 홈런구 앞에서는 오후 3시 40분부터 50분동안 선착순으로 걸스데이 팬사인회가 열린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주점을 통해 스카야박

/서미애 기자

스 이용권,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티켓 등을 전달한다.

롯데 게임 참가자들에게는 별첨항 비누와 마스크팩을 나눠주는 등 ‘광 없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맛있는 일세주 레시피”도 공개된다. 이날은 일세주 캠페인 모델로 선발된 조 선대 출신 ‘달달퀸’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음주를 직접 만들어준다.

보해양조 한 관계자는 “보해는 지역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달달하게 흔들흔들 일세chu’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보해의 날 행사가 접체된 경기 때문에 고봉 받고 있는 지역민에게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기열)는 26일 보성군산림조합(조합장 신권우)과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해룡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산림조합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은복서, 철쭉 등 경관수를 심고 유실수를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산촌마을에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26일 보성군산림조합과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해룡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서 필요한 맞춤형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통해 산촌마을을 임업인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

정책과 사업들이 산촌마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 지역 경제활성화·중기 애로해소 협력 강화

### 광주전남중기청-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과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회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정부·공공기관들

이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많이 구매하라”고 요청했다.

김진형 청장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 제품의 공공부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도 발벗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재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황애란 기자

이사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공동대표인 ‘직심’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를, 오찬교 광주전남복합금속가공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달 우수제품 심사위원에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선정을 건의했다.

김진형 청장은 “‘직심’ 인쇄물에 대한 홍보 강화와 공공기관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달 우수제품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황애란 기자

www.ilgoon.co.kr

##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함 (주)일군토건

일군토건은 2004년 창사 이래로 주택, 토목, 조경등 각 사업분야에서 풍부한 실적을 쌓았으며,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새로운 기술혁신과 완벽한 설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정밀하고 견고하게 시공할 것입니다.

건축사업 [ 공공기관/학교/상업시설/오피스/아파트/병원 ]  
토목/전기/조경사업 [ 항만/도로/공원/재해대비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98 일군타워 TEL : 062-574-9882  
목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 72 TEL : 061-277-9882  
경기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0 TEL : 031-813-9983